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	과 장 박호형	042-481-5168
	산업재산정책과	사무관 윤준호	042-481-8661
		2018년 3월 9일(금) 낮 12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특허품질의 **全** 과정 관리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

-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분석 집중 지원 및 핵심 표준 특허 확보
- 인공지능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

□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3.9(금) 오전 10시,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, 「**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**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·확정하였다.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,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*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.

* 지식재산 무역수지(저작권 제외) : ('12)△4.7조원 → ('14)△5.3조원 → ('16)△2.5조원

- 이에,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,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.

- 이번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&D·출원·심사 등 특허 창출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, 산·학·연·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단계별·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,
- ‘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’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,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.

【 3대 추진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】

비전	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	
	추진전략	핵심과제
1	고부가가치 원천·핵심특허를 위한 ‘발명품질 제고’ (R&D 단계)	1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 강화 2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표준특허 확보 3 R&D 특허성과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4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제도 개선
2	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드는 ‘출원품질 향상’ (출원 단계)	1 대학·공공연구의 강한 특허 창출 기반 마련 2 중소·벤처기업의 전략적 특허설계 지원 확대 3 특허업계의 자율적 품질관리 환경 조성
3	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‘심사품질 혁신’ (심사 단계)	1 고품질 심사를 위한 심사인력 확충 2 4차 산업혁명 대비 심사 조직 및 방식 개편 3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1. R&D 단계 : 고부가가치 원천핵심특허를 위한 '발명품질 제고'

□ 첫째, R&D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 고부가가치 원천·핵심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특허관점의 R&D 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발명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.

□ 이를 위해,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부기술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, 이를 특허분류와 상호 연계하여 R&D 전 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○ 구체적으로는, 4차 산업혁명 분야 R&D 기획·선정·수행 단계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유무를 조사·분석하여 원천·핵심 특허 선점이 가능한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*을 집중토록 하였다.

*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분석 지원(IP-R&D) 과제 : ('18) 173개 → ('22) 354개

○ 아울러, 블록체인·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&D 단계에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,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핵심 표준특허 확보*를 지원할 예정이다.

* 우리나라 보유 표준특허 수 : ('16) 909건 → ('22) 1,900건

□ 한편, 4차 산업혁명 기술*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16.4개월에서 5.7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, 우리 기업이 관련 원천·핵심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.

* AI, 사물인터넷, 3D 프린팅, 자율주행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지능형로봇

2. 출원 단계 : 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드는 '출원품질 향상'

□ 둘째, 특허 출원 단계에서 R&D 결과 만들어진 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들기 위해 취약한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출원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.

□ 우선, 대학·공공연구의 경우 특허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 시장수요를 지닌 우수발명에 특허출원을 집중 지원*토록 하였다.

* 특허출원 지원 기관(수요기반/전체) : ('17) 2개/30개 → ('22) 30개/30개

□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해서는, 기존 특허설계 지원 사업 이외에 지식재산(IP) 펀드를 신규 조성*하여 특허설계 지원을 강화하고, '선행기술조사 심사 전 사전 제공' 및 '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심사 동향 분석 제공' 등 기업의 특허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다.

* 중소·벤처기업 대상 특허설계 및 해외출원 지원 펀드 시범 운영('18, 10억)

□ 특허업계에 대해서도, 출원품질이 우수한 대리인에 대한 포상 및 불성실 대리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인센티브·페널티 부여를 확대하고,

○ 정부 특허출원 지원사업의 단가를 적정화하여 저가·저품질 출원 환경을 적정단가·고품질 출원 환경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.

3. 심사 단계 :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‘심사품질 혁신’

□ 마지막으로, 특허 심사 단계에서는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품질을 혁신시켜 나갈 것이다.

□ 이를 위해, 기술 분야별 전문 심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적은 심사 투입시간*을 '22년까지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, 특허 무효율을 '16년 49.1%에서 '22년 33.0%로 낮출 계획이다.

* 국가별 심사 투입시간('16, 시간) : (한) 11.0, (미) 26.0, (일) 17.4, (유럽) 34.5, (중) 29.4

□ 이와 함께, 인공지능심사과 · 사물인터넷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, 융·복합 기술에 대한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‘3인 협의심사*’를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고품질 전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* 심사파트장과 심사관 2인(주심, 부심)이 3인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심사 수행

□ 성윤모 특허청장은 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, 특허 경쟁력 강화는 이제 혁신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”라고 강조하며, “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관련 제도 · 조직 · 업무 방식을 혁신하여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 · 핵심특허를 창출하여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*으로 거듭나겠다”고 밝혔다.

* 지식재산 무역수지(저작권 제외) : ('16) △2.5조 → ('22) 0.6조